

# 제주 삼다수

## 취수부터 포장까지 전체 라인 볼 수 있어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은 1·2·3차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시설 관람, 현장견학, 체험 등의 관광을 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이다. 최근 산업관광은 관광객들에게는 호기심 충족 등 배움과 재미가 있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체나 지역에는 브랜드나 지역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호부터 산업관광지를 통해 기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홍보시설, 재래·전통산업, 과거 산업 유산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화산암반수로 청정 제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강수량이 국내 최대이며, 총 강수량의 46% 정도가 지하로 스며들어 방대한 지하수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삼다수 공장이 있는 교래마을은 비가 많이 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이며 제주도 내에서 유일하게 생수 취수 허가가 난 곳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8분 정도의 홍보 영상을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상 관람 후 제주물홍보관으로 이동해

제주 물의 역사와 제주 지하수의 탄생, 제주 지질의 특성, 화산암반수가 형성되는 과정 등을 살펴본다. 홍보관 입구는 물이 흐르는 듯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깊이별로 제주 지형을 재현해 놓고 있어 마치 지하수





가 흐르는 땅속에 들어선 느낌이다.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수십 겹의 현무암질 용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이 용암층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필터링 되고 각종 유익한 천연 미네랄 성분이 용해되어 건강한 청정 제주의 물맛을 이루고 있다.

**건강한 청정 제주의 물맛을 담아**

홍보관 관람 후 공장 견학로로 이동해 취수부터 포장까지 삼다수 라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삼다수는 원수저장소에서 1차 자외선 살균을 거친 후 2차로 필터 여과 과정을 거친다. 지하 420m 밑에 있는 화산암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여과 과정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삼다수에서는 페트병까지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생산한 페트병을 가지고 오다 보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염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외에도 두 곳의 공장에서 칼륨이 포함된 ‘휘오 제주 V워터+’와 ‘제주 삼다수 감귤주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주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위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백호보리로 지역맥주 ‘Jespi(제스피)’를 생산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https://korean.visitkorea.or.kr>)]



- 문의 및 안내 : 품질보증팀  
064-780-3567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ttp://www.jpdc.co.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 휴일 : 토, 일, 공휴일
- 주차 : 주차 가능